

기업 단신

K쇼핑-kt위즈, 유소년야구단 후원 업무 협약

T커머스 K쇼핑을 운영하는 KTH와 프로야구단 kt위즈가 유소년야구단 후원 등 사회공헌 및 홍보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언택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kt위즈 타자 강백호와 투수 소형준이 유소년야구단 학생들을 영상으로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KTH는 강백호의 홈런 당 20만 원, 소형준의 승리 당 30만 원을 적립해 유소년야구단을 위한 후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필재 KTH 대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소년야구단 학생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한국닛산, 한국 시장서 철수...12월 말 영업 종료

한국닛산이 일본차 불매운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 닛산은 28일 “2020년 12월 말부로 한국 시장에서 닛산 및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닛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닛산은 이로써 미쓰비시 자동차와 쓰바루에 이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세 번째 일본 브랜드가 됐다. 한국닛산의 영업은 12월 말부로 종료되지만, 기존 닛산과 인피니티 고객 차량의 품질 보증, 부품 관리 등의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는 2028년까지 향후 8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에듀윌

주책관리사 합격생들의 목소리를 듣다

합격비법 담은 수기 전격 공개한 에듀윌



최고 6년간 주책관리사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약 11%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책관리사가 결코 쉽지 않은 시험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올해는 2차 시험에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보다 힘든 시험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합격을 경험한 선배 수험생들의 조언을 귀담아듣는 것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관계자는 “평균 합격률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은 물론 2년 연속으로 최고득점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며 “높은 합격률은 1600건이 넘는 시험후기 및 합격수기를 통해서도 증명된다”고 전했다.

현재 에듀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제22회 주책관리사 시험의 후기 및 합격수기는 1600건을, 총 조회수는 무려 630만 건을 넘어섰다.

갓 50살을 넘겼다는 제22회 주책관리사 합격생은 “준비하는 과정이 고됐지만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 지난 시간이 영화처럼 뇌리를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준경하는 선배로부터 실력 있는 교수진이 많은 학원을 등록해 공부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란 말을 듣고 에듀윌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매일같이 필기하고 듣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비록 시작은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었지만, 인내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 외에도 많은 주책관리사 합격생들이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는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새로운 기회은다” 변신 진두지휘



LS그룹이 연구개발 및 미래 준비 전략인 'R&D Speed-up'과 '디지털 전환(DT)'을 가속화해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LS엠트론도 DT 기술을 통한 생산 효율성 극대화로 국내 최초 트랙터 연 2만 대 생산 돌파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LS그룹

LS그룹 ‘디지털기업 전환’ 속도 낸다

미래전략 'R&D 스피드' 강화  
구자은 회장 미래혁신단 맡아



구자열 회장

LS전선, IoT 재고 관리 추진  
LS일렉트릭, 전 라인 자동화  
엠트론, 트랙터 연2만대 돌파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최근 사내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년도 경영계획 달성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힘들겠지만 평소보다 비싼 각오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의 이 힘든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찾아올 거란 믿음을 가지고 위기 극복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자”라고

강조했다. LS그룹은 연구개발 및 미래 준비 전략인 'R&D Speed-up'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에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역시 지주사 내 미래혁신단을 맡아 각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과제를 추진하고, 애자일 경영기법을 전파하는 등 LS그룹의 디지털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LS전선은 전선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제품과 자재에 통신 센서를 부착해 핸드폰으로 위치와 재고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



LS ELECTRIC 청주 스마트공장

템이다.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르는 제품의 출하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동 경로의 추적이 가능해 운송 중 일어나는 도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LS ELECTRIC은 청주 1사업장 G동에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 라인에 걸쳐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후 저압 기기 라인 38개 품목의 1일 생산량은 기

존 7500대 수준에서 2만 대로 확대되고 에너지 사용량 역시 60% 이상 절감됐으며, 불량률이 급감하면서 생산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LS엠트론은 실시간 생산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설비 예방 보전 시스템(CMMS) 활용 등의 DT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내 최초로 트랙터 연 2만 대 생산 돌파에 성공했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자동화·빅데이터·AI 기술 등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오픈이노베이션 등 스마트 R&D 방식을 통해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6월 20~21일 전라남도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리는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시즌 개막전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슈퍼레이스 모습. 사진제공 | 슈퍼레이스 대회 조직위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무관중 경기 개최

채널A 비투 중계방송 채널 확장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시즌 개막전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슈퍼레이스는 6월 20일~21일 전라남도 영암군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개최될 예정인 시즌 첫 레이스가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흑시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슈퍼레이스는 개막전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지난 시즌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중계 방송에 집중한다.

올 시즌 처음 도입한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전달, 레이스 사이사이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등 화면을 통해서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계방송사인 채널A를 비롯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동빈 슈퍼레이스 대표는 “오랜 시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기다려주신 모터스포츠 팬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스 현장의 흥분과 감동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다양한 라이브 중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이베이, 빅스마일데이에 3070만개 팔았다

하루 평균 341만개...역대 최대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G9 공동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에서 누적 판매량 3070만 개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루 평균 341만 개, 초당 39개의 상품이 판매된 셈이다.

빅스마일데이를 처음 시작한 2017년 11월 이후 최대 실적이다. 지금까지 총 5회 행사의 누적 판매량은 1억4570만 개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는 2만 여 개의 스토어가 참여했다. 특히 아디다스와 라코스테, LG, 삼성 등 100여 개 대형 브랜드가 직접 참여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합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스마일배송 상품도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번 빅스마일데이 흥행을 보복소비 확대와 언택트 쇼핑 트렌드로 분석했다. 김태수 이베이코리아 영업본부장은 “빅스마일데이 흥행 성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러 있던 소비심리를 적절히 자극하면서, 쇼핑 감증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구매고객과 판매고객 모두가 크게 웃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아프리카TV, 경남FC와 업무협약 맞춘

“축구 콘텐츠 활성화에 힘모을 것”

아프리카TV가 K리그2 소속팀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하 경남FC)과 국내 축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공식 미디어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공식 미디어 파트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2020 시즌 경남FC 구단 편파중계 방송 및 VOD 서비스와 경남FC 구단 라이브 콘텐츠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경남FC와 대전하나시티즌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시즌 경남FC 경기의 편파 중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대표는 “업무협약



아프리카TV와 경남FC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프리카TV 정찬용 각자 대표이사(왼쪽)와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박진관 대표이사. 사진제공 | 아프리카TV

을 통해 경남FC 구단의 콘텐츠 발전과 아프리카TV 스포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아프리카TV는 프로 스포츠 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저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i2@donga.com